**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ㆍ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ㆍ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행동지침:** 다음 면 참조

**ㆍ선교사편지:** 사랑의 후원 헌금은 이번 주까지로 마감합니다.

**ㆍ환영:** 강주희 사모(김요한 목사)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6:30-44 월/막6:45-56 화/막7:1-23 수/막7:24-37

목/막8:1-26 금/막8:27-9:1 토/막9:2-13 일/막9:14-29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15일** | **3월 22일** | **3월 29일** | **4월 5일** |
| **예배기도** | 손재호 | 신일수 | 김평님 | 강일구 |
| **말씀일기** | 유근임 | 정수연 | 손민해 | 민경웅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11호 2020년 3월 15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전 교 인 주 일 가 정 예 배 (3. Fasten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시91:14-16 | | 찬송/Gemeindelied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26번 | | 찬송/Gemeindelied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 기도/Gebet 손재호 안수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유근임 집사  찬양/Chor 565장 예수께로 가면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시33:16-22 | | 설교/Predigt **’군대와 구원’**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543장  봉헌/Kollekte 634장 부르며 헌금 (교회구좌로 송금) | | 광고/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IBAN: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 **코로나19 대응 2차 행동 지침** ▶

유럽 및 독일에서도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직운영위원회가 긴급히 의논하여, 2차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1. 3월 15일부터 주일예배 및 토요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 현재로서는, 주일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중계는 아니고, 미리 목회자 가정에서 드린 예배 실황을 녹음하여 준비된 음성파일을 늦어도 주일 11시 45분쯤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아침 7시 전에 녹음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교우들은 가능하면 12시 조금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12시에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함께). 부득불 시간을 맞추기 힘든 분들은 다른 시간에 드리셔도 됩니다. 다만 서로를 확인 격려하며 축복하기 위해, 간단한 예배후기(예: '예배 잘 드렸습니다')나 예배장면 인증샷 등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도 및 말씀일기 순서 맡은 분들은 자기 순서에 해당하는 원고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녹음하셔서 목회자에게 토요일 중으로 보내주시면, 예배 실황에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녹음이 힘든 분들은 원고를 보내주시면 대독하겠습니다). 생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 맡은 분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충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가 미뤄지거나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6. 각자 따로 있지만 또한 주 안에 함께 있는, 성도의 신비한 사귐을 경험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4일

뒤셀도르프선교교회

**<설교>**

**군대와 구원**(시33:16-22) 손교훈 목사

오늘은 **올해**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오늘 본문 중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2X)

말씀을 받는 순간, “너는 내 것이라”(사43:1)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담임목사인 제게 꼭 필요하고도 뜻깊은 말씀을 주셨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크게 감사하며, 한 해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꿀맛을 봐야지,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더 진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인 요즘 말씀일기 일정에 따라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요. 저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더욱 더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 그것은 한 마디로 **힘은 센데, 콘트롤이 안되는 거**죠. 그 **엄청난 힘이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살게** 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쫓기듯 예수님께 사정해서 돼지떼 속으로 파고들지만, 주님은 수 많은 돼지들을 바다에 다 뛰어들게 해서라도, 군대 귀신들을 잠재우시고, 군대귀신에 붙들려 고생하던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이제 제대로 ‘집’에 살게 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온 ‘데가볼리’(데카 폴리스)-열 고을, 즉 곳곳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무덤 사이를 떠돌며 자신을 학대하며 살던 그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진정 살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암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암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암에 걸렸는지를 초기에는 여간해서 알아채지 못하고, 정작 알게 되었을 때는 치유와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암 이상으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질병이 전염병**입니다. 그걸 우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온 몸으로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득이한 온라인 가정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있는 것이구요.

**전염병**. 걸렸는지도 잘 모르고, 또 걸렸다 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병.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무슨 일이 곧 벌어질지도 몰라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축소하고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다익선**-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생각으로 줄곧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말-“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는지 모릅니다. 총칼로 무장된 군대, 그것도 수가 많은 군대처럼,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규모가 크면 그 자체가 힘이 되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난 큰 게 좋더라’ 하는 광고 카피도 있었죠. 어쨌든 힘만 세면, 크기만 하면, 많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약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버티기가 힘듭니다. 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밀집되어 힘이 세겠구나 싶을 때 더 위험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나약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생히 느낍니다. 엄청난 파괴력의 **핵폭탄으로 무장해 있으면 뭐합니까?** 전염성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상황을** 실제 **몸으로**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핵폭탄이 있던 시절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사람들 마음 속에는 권력이 있으면, 많은 군대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은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아 지금 껏 의지했던 이것들,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올라가며,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탈출해 나오던 때-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바로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잠겨버리는 그 때를** 마음 속에 그려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16-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모쪼록 그의 지혜, 그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물론 우리 인간들은 방역을 위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마음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허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할 일은,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속히 이 어려움이 사라져가도록,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18-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편91:1-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 나는 여호와를 향하며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33:21-22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주님, 위험에 처한 우리를-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전염병의 불안과 공포가 속히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날 많은 군대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오직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선교교회 지체된 우리 교우들, 각자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성도의 사귐, 그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